

Dr. AN, JUNG HEE Hamburg, den 25. 02. 2002

Korean Studies

Universität Hamburg

Binderstr. 34

20146 Hamburg

Name: An, Jung-Hee (安 貞姬)

Nationality: Korean

Affiliation: Assistant Professor

Korean Studies

Universität Hamburg

Binderstr. 34

20146 Hamburg

Germany

Tel. 040/42838-6784

Fax. 040/42838-6484

Section: Language

Field of Study: Old Korean (Koryŏ-Hyangga)

Title: The Use of Negation in Kyunŏ-Hyangga

균여의 普賢十願歌에 사용된 否定의 표현

In my paper I will try to describe the system of negation in the songs of Kyunyŏ by analysing the syntactical circumstances, in which a graphem

or a cluster of graphemes expressing negation occur.

Postal address: Dr. An, Jung-Hee

(private) Beim Grootsee 36

22455 Hamburg

Tel: 040 / 555 99 522 (Fax. Nr. also)

Germany

E-mail address: genari@gmx.de

Dr. An, Jung Hee

University of Hamburg

Korean Studies

Binderstr. 34

20146 Hamburg

균여의 普賢十願歌에 사용된 부정의 표현

The Use of Negation in Kyunyŏ-Hyangga

부정의 방법에는 의미론적으로 보아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중세/현대국어에서 "아니뿔-" 로 표현되고

다른 하나는 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중세/현대국어에서 "㉠ 𣵵-"
"로 표현된다.

여기에 또 Kopula "이-(是)"의 否定形 "아니-(非)"와, Existentialia "있-(有)"의 否定形 "없잖-(無)"등도 포함하면 부정형의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이 연구는 否定의 表現法이 균여향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均여의 "普賢十願歌"를 대상으로 부정형태소의 분포상황과 통합현상을 분석하여 부정을 표현하는 체계화된 차자의 단위체 (cluster of graphems)를 밝히고 나아가서 그 문법적인 기능과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과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부정형태소를 찾아 그것이 나타나는 환경을 분석한다 (예; 부정형태소 不, 毛).

분석의 단위는 원본에 나타나는 노래의 각 行을 기준으로 하되(한 노래에 11 行)

통사적, 의미론적인 분석은 텍스트 전체 (총 121 行)를 대상으로 한다.

2. 부정 형태소의 통합관계를 분석하고 빈도와 문법 기능을 분석한다.

- 부정형 不冬, 不喩, 毛冬, 毛等, 毛冬留의 통사적 환경과 문법 기능, 그리고 의미상의

차이를 밝힌다.

- 중국어에서 부정을 표현하는 한자 (不, 是非, 有無)의 통사적 기능과 비교한다

- 향찰의 부정형 독음과 이두 자료에서의 부정형의 독음과 비교한다.

3. 부정의 표현이 나타나는 문장의 의미를 분석한다.

- 문장의 의미 파악에 있어서는 프라주나의 漢譯 화엄경을 참고로 한다.

결과

균여향가에서 사용된 부정표현을 모두 찾아 그 문법 기능과 의미를 밝혔다.

부정형의 통합관계와 분포환경을 분석하던중 지금까지 오독되어온 차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향가연구가 시작된 오구라 심삐이와 양주동에서부터 오늘날까지 "王"자로 잘못 해독되어온 借字가 사실은 부정형태소 "毛"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결과 지금까지 의견이 분분하던 단어의 정체가 풀리고 긍정문이었던 문장이 부정문이었음이 판명되었으며 그에따라 문장의 통사적인 구조도 바뀌게되었다.

이 誤讀의 訂正에는 통사론적, 의미론적인 증거와 더불어 원본의 서지학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균여의 普賢十願歌에 사용된 부정의 표현

부정의 표현법에는 의미론적으로 보아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중세국어에서 "아니 + 黽-"로 표현되고

다른하나는 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중세국어에서 "㉮ + 黽-"로 표현된다.

여기에 Kopula "이-(是)"의 否定形인 "아니-(非)"와, 존재사 "잇-(有)"의 否定形 "없-(無)"도 포함하면 부정형의 의미 범주는 더욱 넓어진다.

이러한 부정표현이 균여향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균여의 普賢十願歌에

나타나는 부정형태소를 중심으로 그 분포상황과 통합현상을 분석하여 그 문법적인 기능과 의미를 밝히고자한다.

균여향가에 나타난 否定 형태소는 "不"과 "毛" 두 字이다.

먼저 이 두 부정형태소가 나타나는 통사적인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부정을 표현하는 체계화된 차자의 단위체 (cluster of graphems)를 밝히고 나아가서 다양한 문법적인 기능과 의미를 정리해 보겠다. 이 부정표현의 단위체가 균여향가에서 어떻게 음독되었는지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형태소 "不"의 통합관계와 그 기능

15 세기의 문헌이나 언해서를 보면 不은 '아니黽논 흙디라' (訓解, 釋祥 序 3)로 해석되며

자주 "㉮"으로 새겨서 번역한 예를 볼 수 있다.

균여향가에서 不은 5 번 쓰였는데 그중 4 번은 "不冬"으로, 그리고 한 번은 "不喩"가 쓰였다.

1) 不冬喜好尸置乎理叱過(V.8)

2) 不冬菱玉內乎留叱等(IX.4)

3) 他道不冬斜良只行齊(VIII.2)

4) 佛影不冬應爲賜下呂(VII.2)

5) 吾衣身不喩仁人音有叱下呂(V.4)

1.1. 不冬

"不冬" 이 나타난 통사적 환경을 보면 예문 1) 2) 3) 과 4) 모두가 동사어간에 선행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통사구조는 不冬 + Verb 로 나타낼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不冬"이 뒤에 오는 동사어간인 喜(□-), 菱(이울-), 斜(빗기-), 應(응뵈-)에 선접하여 이 동사어간이 반영하는 행위를 부정하는 부사로 쓰인 것이다.

통사적으로나 의미상으로 보아 중세어의 부정부사 "아니뵈-"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不冬"은 고려시대의 이두에서도 자주 사용된 부정사이며 역시 15 세기의 "아니뵈-"와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2. "不喩"

예문 5)의 "不喩"는 균여향가에서 그 용례가 딱 한 번 뿐이다. 그리고 "喩"字는 균여향가에서 "不"字와 더불어 한 번만 나타나는 字이다.

동사와 관계가있는 "不冬"와는 대조적으로 "不喩"는 명사와 관계가 있다.

"不喩"뒤에는 관형사어미 "遁"을 나타내는 한자 "仁"이 오고 이어서

"사람"으로 해석되는 명사 "人音"이 따른다. 따라서 不喩는 먼저 선행하는 "吾衣身"을 부정

하고, 관형사어미 "遁"와 결합하여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통사구조는

Noun + 不喩(+ 仁) + Noun

그 의미는 중세/현대어의 "아니-(非)", 즉 Kopula "이-(是)"의 부정에 일치한다.

따라서 "不喻"는 漢語에서 명사를 부정하는 "非"에 대응하는 향찰표기법으로 볼 수 있다.

"不喻"는 고려시대의 이두문에서도 자주 쓰이는데 항상 명사문의 부정에 사용된다고 한다(이승재,1992:85). 이는 그 문법적인 기능이 이두와 균여향가가 동일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 毛의 통합관계와 그 기능

부정형태소 "毛"는 "不"과 비슷하게 향가에서는 자주 쓰였으나 이두자료에서는 아주 드물게 사용되었다. 균여향가에서 毛는 不과 마찬가지로 冬과 통합하는 예가 가장 많으며(3 번), 드물게는 等과 통합하기도(1 번) 한다. 여기에서 흥미있는 것은 3 번 나타나는 "毛冬"이

그중 두 번은 溜와 더불어 석자단위인 "毛冬溜"로 나타나는 사실이다.

6) 善芽毛冬長乙隱(VI.7)

7) 際毛冬溜願海伊過(XI.4)

8) 間毛冬溜讚伊白制(II.8)

9) 毛等盡良白乎隱乃兮(II.11)

2.1. 毛冬

6) 善芽毛冬長乙隱(VI.7)

여기에서 두자 단위로만 찍인 '毛冬'은 명사 "善芽(선아)"를 후행하며 동사어간인 "長(길-)"을 선행하고 있다. 통사적인 면에서 보면 "善芽"는 문장의 주어이며 '長-'은 자동사로서 '毛冬'에 의하여 부정되고 있다. 따라서 '毛冬'은 후행하는 동사를 부인하는 부사로 기능하여 그 통사구조는 `毛冬+ 동사'로 표현되며 앞에 설명한 '不冬+ 동사'의 구조와 동일하다. 그러나 의미론적인 면에서 보면 위 예문의 "毛冬"은 중세 국어나 현대국어의 능력의 부정을 의미하는 "㉠뽳-"에 대응하는 것으로 행위의 부정인 "아니뽳-"를 의미하는 "不冬" 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두에서는 "㉠뽳-"는 의미를 가진 소위 능력의 부정표현으로 "不得"이 사용되었다. 후대 이두 자료집에서 "不得"이 "모질" 혹은 "모달"로 읽히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균여향가의 "毛冬"이 이두의 "不得"과 그 의미기능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2.2. 毛等

"毛等"은 균여향가에서 한 번만 사용된 부정표현이다.

9) 毛等盡良白乎隱乃兮(II.11)

"毛等"은 후행하는 분포부사 "盡良 (다아)"를 수식하며 동사 '白'(끗-)'를 부정하는 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통사적인 기능에 있어서 "毛等"은 예문 6)의 "毛冬"과 일치한다. 의미상으로도 '㉠'은 뜻을 나타내는 "毛冬"과 일치하여 위 예문은 "㉠ 다 사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사적으로, 또한 의미적으로 그 기능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毛冬"과 "毛等"이 유사한 한자독음에 바탕을 둔 동일한 문법형태의 다른표기(異記)임을 (phonetic variant)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 언급한 균여향가의 부정형태소 `不'와 `毛'의 동일한 통합현상을 고려시대의 이두자료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으나, '等'이 부정소와 後接한 예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毛等"과 "毛冬"의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문 6)과 9)는 동일한 부정표현으로 간주하나, '冬' 대신 '等'이 쓰인 것은 흥미있는 사실이다.

2.3. 毛冬留

예문 7)과 8)에서 "毛冬"은 "留"를 동반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균여향가의 부정표현 "毛冬"은 위에 언급한 예문 6)과 7)의 두가지 예로만 알고있었다. 이것은 예 8)의 "間毛冬留"의 毛를 지금까지 王으로 오독한데 있다.

향가연구가 시작된 오희라 심페이와 양주동에서부터 지금까지 "毛冬留"의 毛는

王으로 인식되어 "間王冬留"로 해독된 것이다. 그리하여 균여향가에서 "王"자는 "覺樹王"과 "間王"에 두 번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학계에서는 "間王"을 "覺樹王"과 유사한 부처의 호칭중의 하나로, 또는 스님등으로 해독해왔다. 유창균(1994)의 향가비해에 열거된 예문 8) 間毛冬留讚伊白制 에 대한 제 학자들의 해독은 다음과 같다.

예문 8) 間毛冬留讚伊白制 (II.8)

a) 間王들을 기리끗제 (小倉進平)

b) 西王羈루 기리끗져 (양 주동)

- c) 꿈왕韃로 기리꿈韃 (이 택)
- d) 한왕들로 기리꿏져 (홍 기문)
- e) 간왕드루 기리꿏져 (정 렬모)
- f) 슷님韃루 기리꿏져 (지 현영)
- g) 칸왕들루 기리살재 (김 선기)
- h) 슷님韃루 기리꿏져 (김 준영)
- i) 醫王들로 기리꿏져 (김 완진)

유창균은 "間王"이 하늘과 땅사이를 지배하는 "空王"이라고 덧붙이고있다.

따라서 8)의 문장의 의미도 사실은 부정문이어야 하나 긍정문으로 해석되었다.

통사적인 각도에서 보면 모든 학자들이 "間王"을 명사로 보고있으며, 그에

후접하는 "冬溜"는 예외없이 각각 복수접미사 "들"과 기구격조사 "로/루" 등으로 두 字를 서로

독립된 문법형태소로 해독하였다. 뒤에따르는 4 자 단위 "讚伊白制"는 모두가 동사적 서술절로 보는데 일치하고있으며 그 의미해석도 모두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문장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間王 + 韃 + 로 + 讚伊白制"라는 의미는 성립될 수 없다. 동사어간 "기리-"에 후접된 겸양을 나타내는 형태소 "白"을 고려할 때 "間王冬"뒤에는 기구격 "溜"보다는 목적격 "乙"이 따라야 의미가 통할 것이다.

본인이 위 예문 8) "王冬溜"를 "毛冬溜"로 정정하는 데에는 형태적, 통사적인 근거와 서지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먼저 글자의 외형적인 필체 (graphic presentation)를 검토, 비교해본다.

의심을가지고 균여향가 원본의 漢字 "王"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 앞서 언급한 대로 "王"자는 두 번째 노래에 "間王", 9 번째 노래에

"覺樹王"으로 나온다. 覺樹王은 부처가 보제나무 밑에서 정각에 도달한데서 나온 부처의 호칭

임이 분명하나, 間王에 대한 향가학자들의 해독은 위에서 보듯이 아주 다양하다).

- 원본의 두 "王"자를 자세히 비교해보면 그 글자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첫째 글자의 크기에 있어 "間王"의 "王"자는 "覺樹王"의 "王"자보다 훨씬 외소하다. 둘째 두

글자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 완벽한 형태를 보이는 "覺樹王"의 "王"자에 비해 "間王"의 "王"

자는 불완전해보이고 뭔가 떨어져나간 듯 보인다.

이러한 필치의 분명한 차이는 이들이 같은 글자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통사적인 견지:

- "覺樹王焉": 명사 "覺樹王"에 주제격조사 "焉"이 후접하고 있다.

"間王冬留": 명사 "間王"에 그 문법적인 기능이 모호한 "冬留"가 후접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통사적으로보나 의미상으로보나 이론이 서지않는다.

"冬留"는 균여의 마지막 노래 "총결무진가"에서 또 한 번나온다(예문 7).

여기서 우리는 "冬留"에 "毛"가 先接하는 것을 본다.

균여향가에서 "冬"字는 총 8 번 나오는데 그중 6 번은 부정형태소 "不"(4)과 "毛"(2)에 후접하였다.

"王"에 후접한 경우는 위의 "間王冬"한 번 뿐이다.

바로 균여향가내에서 "冬"字가 대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不"(4)과 "毛"에 후접한다는 사실과 "毛冬" 혹은 "毛冬留"라는 통합형태가 반복해 나온다는 사실은 "間王冬留"가 "間毛冬留"일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부정형태소의 통합현상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원본의 "間王冬留" 로 돌아가 이 "王"자와 "毛冬/毛冬留"의 "毛"자를 찾아 그 필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間王"의 "王"字의 마지막획이 떨어져 나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間王冬留"의 "王"을 "毛"로 정정하고

예문 7)과 8)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먼저 "毛冬留"가 나오는 예문 7)에 대한 대표적인 향가학자들의 해독을 살펴본다.

예문 7): 際 毛 冬 留 願 海 伊 過 (XI.4)

- a) 誕 毛 冬 留 願 海 이라라 (소창)
- b) 誕 毛 韉 願 海 이고 (양)
- c) 試 毛 韉 願 海 이와 (이)
- d) 誕 毛 韉 願 海 이고 (홍)
- e) 그 음 두루 願 海 이과 (정)
- f) 誕 毛 韉 願 海 이고 (지)
- g) 間 毛 願 海 鐵 고 (김선)
- h) 誕 毛 韉 를 願 海 이고 (김준)
- i) 誕 毛 韉 는 願 海 이고 (김완)

e)를 제외한 모든 학자들이 "毛冬留"를 부정을 나타내는 의미단위로 보고 선행하는

"際"를 명사 "誕/試"으로 보는데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毛冬留"의 부정표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毛冬"과 "毛韉" 둘로 갈라지고 있다:

전자는 "毛冬"를 중세어 "모" -"로 보고 이에 미래관형격 "鱒"이 붙은 것으로 보고 후자는 "부정부사" 夫 毛冬"에 지각동사 "알-"가 내포된 것으로 보아 현대어로 그 의미를 옮긴다면 "夫 알-", 즉 "알 수 없을"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하는 "際"는 타동사 "알-"의 목적어로 보았다.

이것은 예문 8)에서 모두가 기구격조사로서 해독하였던 "留"의 형태적, 통사적 기능이 위의 예문 7)에서는 분명하게 규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학자들이 이두에서 "不冬"을 "안들/안韉"로 읽듯이 "毛冬"을 "모들/모韉"로 읽음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지각동사 "알-"을 첨가하여 "留"를 반복된 "鱒"로서 목살하거나 혹은 "留"를 미래관형격 "鱒"로 해독하고 있다. 그러나 "毛冬留"가

지각동사 "알-"의 부정표현이라면 "알-"라는 동사어간은 이에 대응하는 독립된 형태소로 표현되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예문 8)과 예문 7)의 통사적 구조를 나란히 비교하여 보자.

8) "際 + 毛冬 + 留 + 願海伊過" "명사 + 부정사 + 留 + 명사적(?) 서술어미"

7) "間 + 毛冬 + 留 + 讚伊白制" "명사 + 부정사 + 留 + 동사적 서술어미"

첫 눈에 두 예문의 통사구조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으로 "間毛冬留"가 오독이었음을 재 확인할 수 있다. 두 예문에서 "毛冬"은 통사적으로 보아 선행하는 명사, "間"과 "際"를 부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뒤에 따르는 서술절 '讚伊白制'와 '願海伊過'를 수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留"의 통사적 기능이다. 향가 학자들은 예 8)의 '願海伊過'를 명사적 서술절로

보고 "留"를 명사 '願海'에 선행하므로 미래 관형격으로 보았다. 예 7)에서는 "留"가 동사 "讚-"에 선행하므로 부사형 접미사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에서 "留"의 통사적 기능의 차이는 뒤에 예 8)의 '願海伊過'를 분석함으로써 다시 밝혀보겠다.

분명한 것은 위 예문 7)과 8)에서 보듯이 선행하는 명사를 부정하는 "毛冬留"는, 후행하는 동사를 부정하는 예문 6)과 9)의 "毛冬"혹은 "毛等"과 그 통사기능이 다르다는 것이며 "毛冬"에 후접된 "留"가 바로 이 기능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흥미있는 것은 예문 7)과 8)의 통사구조 뿐 만 아니라 의미상으로 볼 때도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 의미의 유사성은 각 예문의 앞행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두 번째 노래의 제 7 행 際于萬隱德海繇 (II.7)는 예문 7) 間毛冬留讚伊白制 (II.8)의 앞행이며

마지막 노래의 제 3 행 衆生叱邊衣于音毛 (XI.3)는 예문 8) 際毛冬留願海伊過 (XI.4)의 앞행이다.

보현십원가의 저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역 화엄경의 대응하는 부분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위 예문들의 내용은 "가없는 부처님의 功德海를 끊임없이 찬양하리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향가의 "間毛冬留"는 화엄경의 "無有間斷" 즉 "끊임없이"와 대응하여 "毛冬留"는 "없-(無)"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無有間斷"은 균여향가 9 번째 노래의 제 7 행의 "念念相續無間斷"에서 漢文 그대로 다시 쓰여졌다. 따라서 "際毛冬留" 역시 "갓(際)없-(無)"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두 번째 노래의 제 7 행 際于萬隱德海^蘇, 해석하여 "갓(際)없는(于萬隱)德海"와 예문 8)의 "갓(際)없-(毛冬留)願海"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여기서 "없-(無)"를 의미하는 부정사 "毛冬"과 "于萬"이 같은 부정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지막 노래의 제 3 행 "邊衣于音毛" 해석하자면 "갓(邊)의 없음(于音)"의 "于音"과도 동일한 것이다. 이 부분은 한역 화엄경의 "無量無邊"의 "無邊"에 해당한다. 이것을 보면 "毛冬"와 "于萬" 그리고 "于音"은 다같이 "없-(無)"를 의미하는 부정사이고 그에 선행하는 뜻이 비슷한 명사, "際, 間, 그리고 邊"을 부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 명사들의 의미의 유사성을 유창균(1994:477)은 "際"는 "會, 間, 接, 機, 邊..."등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예문 7)과 8)의 "毛冬"에 붙여진 "留"의 통사적 기능을 검토해보자.

앞서 논의한대로 예문 7)에서 부사절 "間毛冬留"는 후행하는 동사적 서술절 "讚伊白制"을 수식하므로 "留"는 부사적어미로 기능한다. 이와같이 그 통사구조와 의미가 유사한 예문 8)의

"際毛冬留"도 후행하는 '願海伊過'를 동사적 서술절로 보면 부사적 부정형태가 되어

"留"는 부사적어미로 기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향가학자들처럼 후행하는 "願海伊過"를 명사적 서술절로 보면 "際毛冬留"는 관형적 부정형태가 되어 "留"는 명사 '願海'에 선행하는 미래 관형격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두 번째 노래 제 7 행의 "際于萬隱德海"(가없는 덕해)를 고려할때에 "際毛冬留願海"(가없을 원해)에 현재관형격 "遁(隱)"이 적합하고 "緜(留)"는 맞지 않는다.

또 균여향가에서 미래관형격은 대부분 차자 "尸"로 표현된다. 따라서 예문 8) "際毛冬留願海伊過"의 "願海伊過(원꺾- 혹은 □ -)"를 예문 7) "間毛冬留讚伊白制"의 "讚伊白制(기리-)"와 같이 동사적 서술절로 본다면 두문장에 나오는 "毛冬留"는 부정부사인 것이다.

이상 통사적, 의미론적인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리면 "毛冬留"는 "잇-(有)"의 부정인 "없-(無)"의 부사적 형태라고 본다. 그 의미가 같은 형태로 "于音" 과 "于萬"을 관찰할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예문 6)과 9)의 毛冬/毛等과 예문 7)과 8)의 毛冬留의 통사적, 의미론적인 기능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전자는 뒤에 따르는 동사를 부인하는 기능을하며 "大꺾-"의 의미를 가지고 후자는 선행하는 명사를 부정하는 기능을 하며 "없-"는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균여향가에서는 같은 차자의 단위체로 표현되는 부정의 의미기능이
그통사적 구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Bibliography

赫連 挺 均如傳, 1075

Takakusu, J & *The Taisho Shinshu Daizokyo (The Tripitaka 大藏經)*,

Watanabe, K(eds.) 10. vols. Tokyo: The Taisho Shinshu Daizokyo Kanko
Kai,

1924-1929 般若 詔譯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 大正原版 大藏經, 第十冊
新文祭出版公司影印

유 창균 향가비해, 1994

고 영근 표준중세국어문법론, 개정판, 서울, 1996

서 종학 吏讀의 歷史的 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5

장지영, 장세경 이두사전, 서울, 1991

이승재 고려시대의 이두, 서울, 1992

안 정희 *Concordance of the characters in the Kyunŏ-Hyangga*, in Press

Soothill, W. E. *A Dictionary of Chinese Buddhist Terms*, 1975